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내일을...약속 지켜달라”

유권자들 ‘발길’...사전투표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110세 최고령’ 김정자 어르신도 직접 참정권 행사

■ 6·3지방선거 본투표 현장

“누가 당선되든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갈등보다 지역 발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나의 선택이 좋은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당선인은 공약 실천으로 지역 변화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제9회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광주·전남 지역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전투표 때보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유권자들은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선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6시 광주 동구 충장동 제1투표소(광주중앙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개시를 알리자 유권자들은 신분 확인과 선거인명부 서명을 마친 뒤 차례로 기표소로 향했다.

유권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동구청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었고,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원·비례대표, 동구의원 선거투표를 마쳤다. 선거사무원과 정당별 집관

인들은 투표 전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첫 번째 투표자로 이름을 올린 최계봉씨(78·충장동)는 “지인과 해남으로 낚시를 가기 전 투표를 하러 왔는데 첫 투표자가 돼 기분이 좋다”며 “당선된 후보들이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권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화제가 됐는데 본투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옥례씨(90·충장동)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활력 회복을 기대했다.

문씨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이전 이후 금남로와 충장로, 예술의 거리 등이 예전만 못하다”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를 살릴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했다”며 “가족들에게도 꼭 투표하라고 연락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 동구 최고령 유권자의 투표도 눈길을 끌었다.

김정자 어르신(110)은 딸 이종순씨의 부축을 받으며 계림1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노란 리본이 달린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에 들어선 김 어르신은 직접 선거인명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용주초등학교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에 이름을 적고 기표를 마쳤다.

이를 지켜본 선거관리원과 유권자들은 “정정하시라”, “건강하시라”며 박수를 보냈다.

김 어르신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를 거른 적이 없다”며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가 넘는 나도 투표를 하는데 시민들도 꼭 투표에 참여했으면 한다”며 “손 씻기와 독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웃어 보였다.

비슷한 시각 광주 북구 용봉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출에서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다수 유권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투표에 임했고, 기표소 안에서는 후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변화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본투표는 전남 785곳, 광주 359곳 등 총 114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선거인 수는 전남 155만8206명, 광주 118만9519명 등 모두 274만7725명이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전남·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으로 이어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투표 현장 이모저모

“소중한 한 표 행사...번거롭지 않아요”

“투표하셨어요? 학교도 한번 둘러보세요”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 제1투표소인 광주중앙초등학교에서는 조금 특별한 풍경이 펼쳐져 눈길.

투표소 입구 한편에는 학교 홍보영상과 학생들의 글라스아트, 그림 작품 등이 전시돼 유권자들의 발길을 붙잡아.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을 감상.

전시를 기획한 박찬은 광주중앙초교사(37)는 투표소로 학교가 지정된 점에 착안해 학교 알리기에 나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교생 22명과 함께 2주 전부터 전시를 준비했다고.

홍보영상에는 학생들이 직접 등재해 “전학생을 반겨줘요”, “모두가 친해요”, “시내가 가까워 좋아요”, “소풍을 많이 가서 좋아요” 등 학교의 장점을 소개, 작품과 영상은 본 유권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박 교사는 “예비 학부모와 신혼부부들이 중앙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꼭 신입생이 들어와 학교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대.

한 유권자는 “나도 중앙초 졸업생인데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다”며 “어른들의 한 표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투표 이상무”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이어져.

충장동 제1투표소에서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최재원 투표사무원(36)은 이날 오전 5시부터 투표소에 나와 투



출구조사 6·3지방선거일인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초등학교에 마련된 치평동 제6투표소 앞에서 방송사 출구조사원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아이들 미래 담은 특별한 투표소 ‘눈길’ 투표사무원 분주·일부 유권자 헛걸음

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투표 개시 전 투표관리관과 함께 선거사무 안내와 선서를 마친 뒤 투표용지와 기표도구 등을 다시 한번 점검.

오전 6시 정각 투표가 시작되자 유권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업무를 차분히 수행. 한 유권자가 서명란에 한자로 이름을 적자 한글로 작성해 달라고 안내하는 등 세심한 모습도 보여.

최 사무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도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지만 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해 더 꼼꼼함이 필요하다”며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아차, 투표소 잘못 왔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의 헛

걸음도 이어져.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시민들이 충장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

투표관리관은 신분 확인 과정에서 해당 유권자의 투표소가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올바른 투표소 위치를 안내.

한 유권자는 “충장동 권역이면 어디든 투표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제2투표소로 가야 한다고 해서 다시 이동하게 됐다”고 멍하게 웃어. 이어 “조금 번거롭더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선된 후보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청소년들, 통합시장·교육감 ‘모의투표’

광주YMCA, 등·서·북·광산 4개 권역 동시 운영 본인 확인 등 실제 선거 동일...다양한 의견 표출

“실제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 흥미진진했어요. 덕분에 선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광주지역 청소년들도 모의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광주YMCA는 이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6·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모의투표는 동구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비롯해 서구 마재근린공원, 북구 일곡사거리, 광산구 청단LC타워 앞 등 광주 4개 권역에서 동시에 운영됐다. 남구 모의투표는 지난달 29일 광주푸른꿈장작학교에서 이뤄졌다.

휴일을 맞아 충장로와 공원,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찾은 청소년들은 거리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 관심을 보이며 발길을 멈췄다.

광주YMCA 소속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청소년에게도 소중한 권리를, ‘한 표로 말하는 청소년의 생각’ 등의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참여를 독려했다.”

모의투표는 실제 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서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증과 학생증, 도서대출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배부받았다. 용지를 받아 든 학생들은 기표소 안에서 후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했다.

특히 이번 모의투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 학생들은 지역 발전 방향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미래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체험했다.

모의투표에 참여한 이우나양(14)은 “부모님이 사전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가 쉬울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긴장되고 떨렸다”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학교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는 교육감이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모양(14)도 “투표는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참여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덕분에 선거에 관심이 생겼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교육감과 시장이 뽑히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투표를 마친 청소년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게시판에는 ‘교육감님, 진로탐색 프로그램 늘려주세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해주세요’ 등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다양한 캐릭터가 그려진 모의투표 인증용지를 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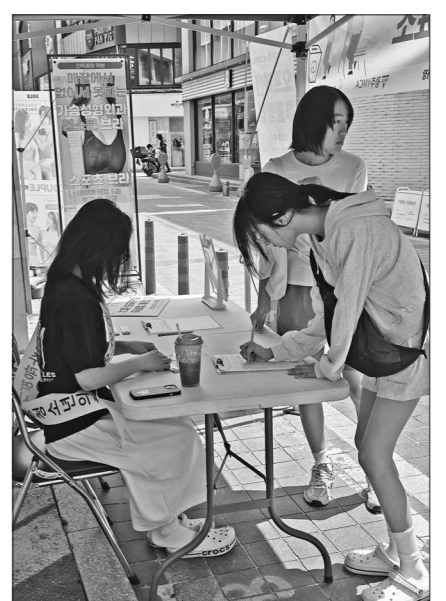
류현민 광주YMCA 담당자는 “청소년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정치와 지역사회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이해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며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를 직접 선택하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광주지역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1135명이 참여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이날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는 광주YMCA 주최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모의투표’를 운영했다. 청소년이 기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 앞에 대기하고 있다.



한 청소년이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